

September 29, 2006

YONHAP NEWS
AGENCY

“북핵 포기팬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추진”

박근혜 전대표, 아데나워 재단서 연설

독일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면 주변국과 국제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베를린 아데나워 재단에서 ‘독일과 한국: 함께 열어가는 미래’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북아개발은행 구상과 관련,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몽골과 유럽연합(EU), 세계은행(IBRD),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이 공동 출자,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개발에도 투자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북아개발은행은 일단 50억달러 규모로 시작하되, 한국이 15억달러를 대는 등 30억달러는 역내국가에서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동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경우

투자유발효과가 10배 정도 됐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핵문제 해결 이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동북아안보협의체’로 발전해가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안보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용된다면 이를 동북아안보경제공동체(NEASEC)로 확대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취임한 뒤 새로운 지도력이 성공하고 있는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했고,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느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주재 미군의 역할에 대해 물었고,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미군이 이란 등 다른 곳을 가는 데 중간기지로 주로 활용하며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기지를 폴란드로 옮긴다면 섭섭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September 29, 2006

Übersetzung

„Wenn Nordkorea die Atomwaffen aufgibt, kann ein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gegründet werden“

Die ehemalige Parteivorsitzende Park Geun-hye bei einer Rede in der Konrad-Adenauer-Stiftung

Park Geun-hye hat sich am 28. September in Deutschland dahingehend geäußert, dass es nötig ist ein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an der Nachbarländer und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beteiligt wären, zu gründen, wenn Nordkorea seine Atomwaffen vernichtet. Die sechs Länder der Sechs-Parteien-Gespräche sowie die EU, IBRD, EBRD, ADB sollen gemeinsam anfangen. Dies hat sie bei einer Rede an der Konrad-Adenauer-Stiftung zu dem Thema „Deutschland und Korea: Gemeinsame Zukunft“ geäußert. Vorher hatte sie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getroffen.